

## 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 해외 출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 관리 강화 당부
- 입국 후 21일간 모니터링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지난 5.28. 질병관리청이 개최(차장 주재)한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해외 출장이 빈번한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간 협조하여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끝으로, 귀국 후 최대 잠복기(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귀국시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력을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하고,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발현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 기간에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 Q-CODE란? 입국 전 방문 국가와 건강상태를 휴대폰, PC 등으로 미리 입력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

특히 예방수칙은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께서는 이번 예방수칙에 따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업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현옥 (044-202-8870)
		담당자	사무관	진영훈 (044-202-8872)
			주무관	박혜원 (044-202-8879)
협조 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옥수 (043-719-9200)
		담당자	사무관	정우재 (043-719-9218)
			주무관	김수영 (043-719-9214)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26.5.17.)

#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감염 경로**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과 직접·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  
\* 소변, 침, 땀, 대변, 구토물, 모유, 뇌척수액, 정액 등

**감염 증상** 잠복기는 2~21일. 초기에는 발열, 피로감, 권태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고,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발진, 원인불명 출혈(이유를 알 수 없는 멍·출혈) 등 발생

##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 ▶ **전담관리** 사업장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보건소·질병관리청(1339) 등과 핫라인(Hotline) 구축
- ▶ **위험관리** 중점감역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방문 일정을 사전 파악하고, 불요불급한 출장·개인 여행 포함은 자제·연기 권고

구분	국가명(5.26.기준)	정의
중점 감역관리지역	DR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감역관리지역 중 감염병의 치명도·전파력이 높아 집중 감역이 필요한 지역
감역관리지역	케냐, 탄자니아	감염병의 유행 또는 유행 우려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중점감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정·운영되므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 필요

\* (접속경로)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점감역관리지역' 검색

- ▶ **예방교육** 감염 경로(체액 접촉 등), 잠복기(2~21일) 등 사전 안내하고, 예방 수칙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신고방법 등 교육 실시

##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 및 대응 공조

- ▶ **위생수칙** 손씻기 및 점막 부위 접촉 금지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 **접촉차단** 야생동물(사체 포함) 및 고기(Bushmeat: 사냥해 얻은 고기) 섭취 금지, 현지 장례식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 **비상대응** 유증상 발생 시 본사 및 현지 대사관 등에 즉시 보고, 외교부·질병관리청 등과 연계한 후송·치료 공조



## 입국 및 귀국 후 21일 잠복기 집중 관리

- ▶ **검역신고**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를 반드시 제출  
\* Q-CODE란? 입국 전 방문 국가와 건강상태를 휴대폰, PC 등으로 미리 입력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
- ▶ **모니터링** 최대 잠복기(21일) 동안 의심 증상(발열, 두통 등) 확인
- ▶ **격리지원**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및 유급휴가 활용을 통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원천 차단
- ▶ **신속대응** 증상 발현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후 지시 이행, 확진 시 역학조사 협조 및 인사노무상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  
참고사항**

기본 원칙 미준수로 인한 노동자 감염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장자 관리 및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